



KEPCO E&C family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VOL. 495 | 07+08 | 2026



Contents

July+August
Vol. 495

KEPCO
ENGINEERING&CONSTRUCTION

04
생각의 틈
‘일’이라는 이름의 성장

06
한기 생각
나를 성장시키는 힘, 일

08
한기 人 노트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한기인
현직자가 들려주는 자격증 도전기

12
취미 연구소
바삭, 말랑, 힐링! 악뽀볼에 빠지다
악뽀볼 클래스

16
E&C ON 1
퀴즈로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청렴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청렴 골든벨

18
E&C ON 2
과학으로 재밌게 풀어 본 한전기술과 미래 에너지
과학 유튜브 ‘궤도’와 함께한 유튜브 촬영 현장



20
굿바이 한기
오랜 시간을 품고, 새로운 내일로
2026년 상반기 정년퇴임자 인터뷰

22
가봤습니다
오케스트라 하모니에서 협업의 답을 찾다
-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유체계통설계실 최윤재 처장

26
잠시 멈춤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아봉사’입니다

28
여기서 행복
여름을 닮은 강릉에서

34
친절한 AI
어려운 작문·독서도 AI와 함께

36
초록 한 걸음
슬기로운 분리배출

38
트렌드 읽기
다시 장난감에
빠진 어른들



40
한눈에 제철
상큼 담백한 여름 맛의 조화
토마토 가지 파스타

42
건강한氣
에어컨이 만든 계절병
냉방병 주의보

44
E&C 뉴스

46
독자 이벤트
컬러링 타임

47
한전기술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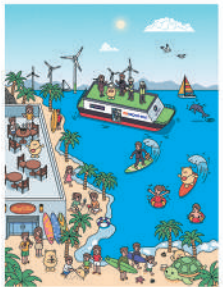


통 권 495호
발행인 김태균
발행일 2026년 8월 25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02-786-2999)



18

COVER STORY
성장 너머



부서지는 파도 위로 청량한 햇살이 쏟아지는 여름, <KEPCO E&C Family> 이번 호는 피서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리 일상에 청정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한전기술표 해상풍력과 독자 개발 중인 해양 SMR(소형 모듈식 원자로) 'BANDI'도 놓치지 마세요. 한전 기술 마스코트 '테크니'가 여러분의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합니다.



16

28



‘일’이라는

어린 시절 나를 표현하는 것들 중 하나는 장래희망이었다. 과학자나 화가 같은 직업을 서툰 글씨로 끄적이며 미래의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대를 품곤 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하루하루 버티는 일상에 익숙해진 내게 일은 그저 삶의 수단이 됐다. 월급, 생계, 안정.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게 전부라고 믿는 순간 일은 정말 수단이 되어버리고, 오늘은 그저 소모된 시간으로 기억되고 만다.

그런데 가끔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다. 스스로도 몰랐던 능력이 어려운 문제 앞에 불쑥 튀어나오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으로 잠깐 멈추게 된다. 그 감각이 바로 성취감이다. 결과를 손에 쥐어서가 아니라 어제의 내가 다다르지 못했을 곳에서 있다는 것을 느끼는 감각. 일터란 그런 감각이 일어나는 장소다. 혼자였다면 부딪치지 않았을 문제들, 혼자였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나의 어떤 부분들. 때로는 조직이라는 구조 안에서 마모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마찰 속에서 단단해지기도 한다. 성장이란 대개 그렇게 조용히 이뤄진다.

일은 나를 먹여 살리는 동시에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출근길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제와 조금 다른 내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은 충분히 설레어도 좋지 않을까. **E&C**

이름의 성장

나를 성장시키는 힘, 일

활기차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

내가 살아가는
이유

책임감으로
전문성을 증명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일’이란?

소중한 가족의
주춧돌

나의 한계를 깨는 것

어린 시절의
꿈을 **펼치는 것**

일이란 생계를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작은 성취가 자신감을 만들고 그 경험들이 쌓여 오늘의 나를 완성한다. 한전기술 임직원들은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을까? 일과 성취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Text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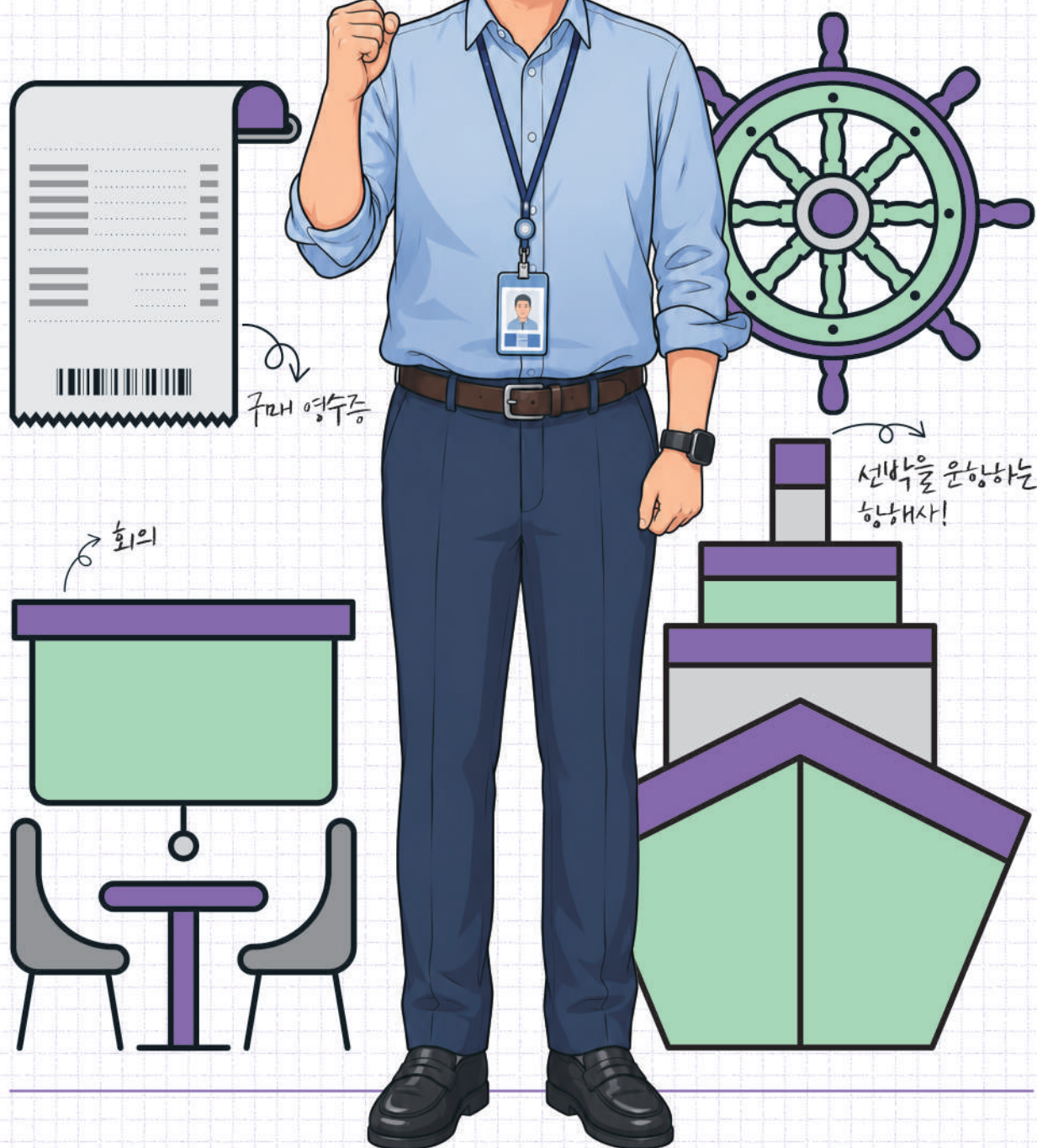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한기인 현직자가 들려주는 자격증 도전기

Text 각 참여자

구매 업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

조달처
김상응 팀장



HOW ABOUT ME?



저는요

2007년 입사. 발전기나 변압기 같은 사업용 기자재부터 서
버처럼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사업용 물품 구매와,
기자재 공급망(유자격자) 관리, 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와
관련된 공공구매를 관리하는 EPCM구매팀의 팀장입니다.

우리 EPCM팀으로

저희 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계약 관련 이슈로 공
개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계약,
혹은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과 선례를 검토해
함께 회의하고 거기에 맞는 실무방침과 콘셉트를 정해 업
무를 진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팀 외부와의 협력뿐 아니라
팀 내의 협업도 필수적이죠. 팀원들 모두 성실하고 힘을 모
아 일하는 분위기라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유한 자격증은요

CPSM(Certified Professional in Supply Management, 국
제공인공급관리전문가)은 구매·조달·계약·공급망 관리에
관한 자격증으로, 총 3개 영역의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
며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면 자
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구매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자격이지만 어느 자격이나 그렇듯 바로 실무 전문가로서
의 역량을 인정받았다기보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소
양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의

권유에 따라 2010년 12주간 주말 교육과정 후 시험을 치러
우리 회사 최초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당시는 비교적 초
기라 영어로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현재는 한국어 시험이
생겨 편리해졌습니다.

한전기술에서 이런 목표를 꿈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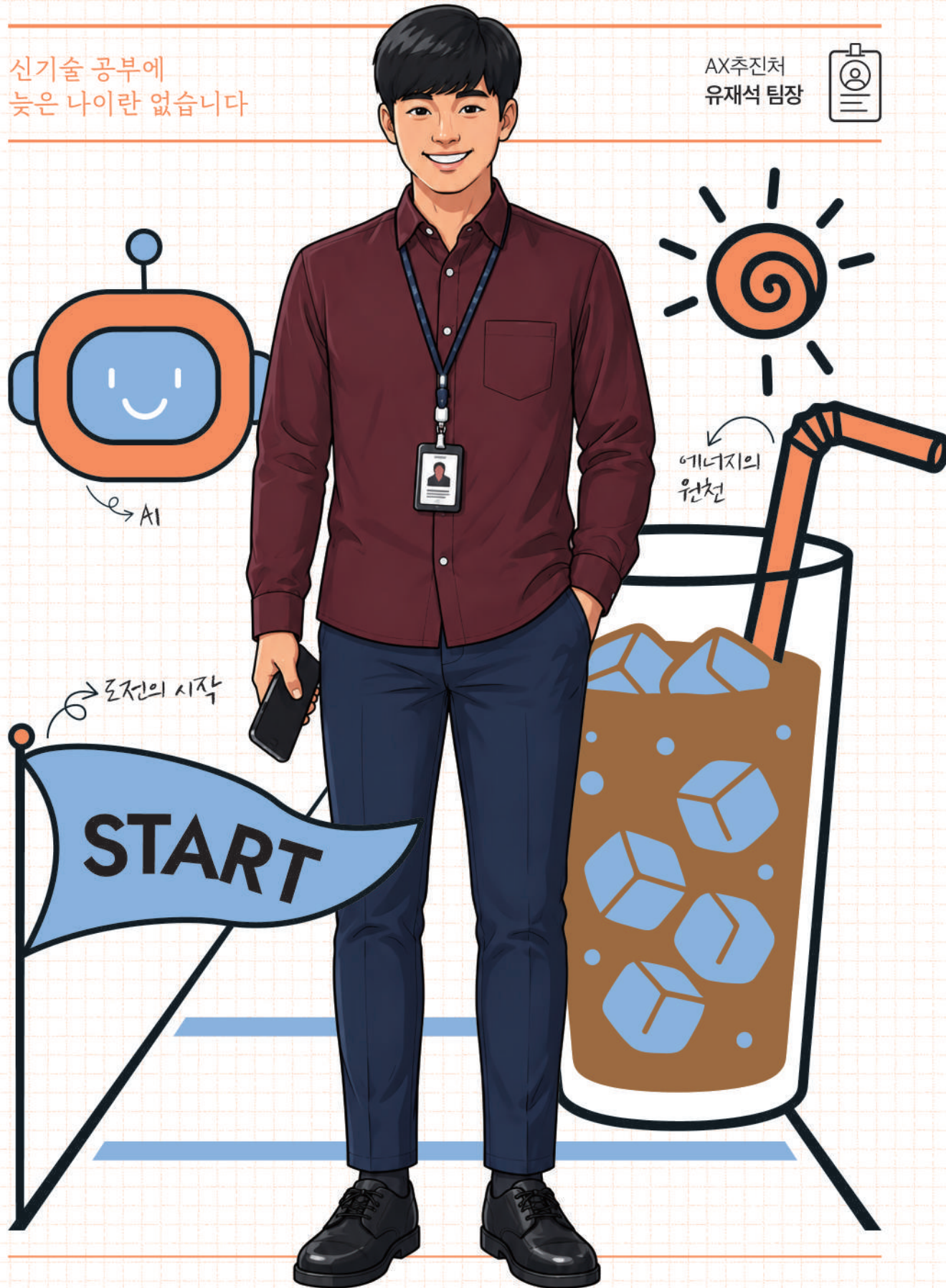
중년의 문턱에 들어선 이후로는 업무가 모험이 아닌 제 승
객들이 무사히 내릴 때까지 선박을 운항하는 항해처럼 느
껴집니다.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
다는 목표는 늘 있습니다. 다만 저 자신에 관해서는 목표를
정해놓기보다 파도가 잔잔하면 속도를 내고, 파도가 치면
넘는 데 몰입하며 회사 생활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한전기술 후배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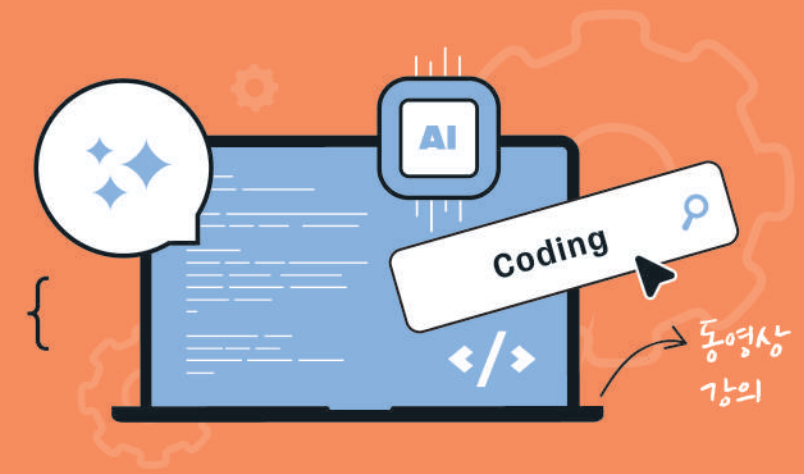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시다만, 우선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이 들어보기 위해 노력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구매나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업 부서의 수요
와 협력사의 공급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사업 부서와 수요
부서의 니즈, 공급업체의 의도에 귀 기울여야 하고 관련 사
업주나 운송업체, 규제기관의 목소리까지 최대한 들어야
합니다. 말과 의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 문서 속에 드러나
지 않은 취지까지도 들어보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 최대한 적극적으로 들어야 가능한 옳은 판단, 무리 없
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술 공부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AX추진처
유재석 팀장



HOW ABOUT ME?



저는요

2010년 입사 후 당시 원자력본부 전기설비팀에서 국내·해외 원전 전기설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형상관리추진반에서 전기분야 설계요건 관리를 담당하며 업무 효율화를 고민하던 중 코딩을 처음 접하게 되고, 독학으로 익히다 스마트융합연구소로 옮겨 본격적으로 코딩, 데이터 분석, AI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AX추진처는 이런 부서예요

AX추진처는 전사 AX 전환 및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신설됐습니다. 제가 소속된 AI융합설계팀은 각 기술부서·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AI 응용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설계분야 및 사업부서에서 적용 가능한 AI 기술 발굴과 개발, 팀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지원합니다. 우리 팀은 설계 및 공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재들 중 AI와 코딩에 관심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이전 소속 부서나 연령대는 달라도 회사의 AX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서로의 강점을 맞춰가며 팀워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자격증은요

2024년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데이터분석전문가(ADP, Advanced Data Analytics Professional)를 취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반의

전문 영역을 다루는 자격증으로, 업무 수행 중 데이터 처리와 분석, 모델링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을 철실히 깨닫고 준비했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필기는 3시간 동안 이론 평가, 실기는 4시간 동안 실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이때 익힌 이론과 코드는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어 현재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에서 이런 목표를 꿈꿨어요

우리 회사가 가진 오랜 전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신 AI 기술과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접목해 업무 방식의 혁신을 이끌고 싶습니다.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성을 더해, 한 단계 더 진보된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함께하는 한전기술 후배분들!

저는 35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코딩을 시작했는데요. 누구나 '지금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망설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분석 분야는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작은 프로젝트라도 직접 만들어 보고 코드를 짜보며 부딪혀 보길 권합니다. 시행착오 과정에서 얻는 통찰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도전이 우리 회사의 혁신을 만들어 갈 겁니다. E&C



바삭, 말랑, 힐링! 왁뿌볼에 빠지다

왁뿌볼 클래스



겉은 바삭, 속은 말랑 쫄득한 촉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핫템' 왁뿌볼 만들기에 한전기술 인턴들이 참여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왁뿌볼에 재미와 설렘, 성취감까지 모두 담은 특별한 하루를 따라가 본다.

Text 김지연 Photo 고인순



인턴 동기들의 즐거운 왁뿌볼 만들기

‘왁뿌볼’은 ‘왁스 부수기 볼’의 줄임말로 말랑말랑한 클레이나 스퀴시 겉면을 왁스로 코팅한 촉감용 장난감이다. 손으로 눌러 왁스층을 깨뜨리면 마치 과자를 베어 물듯 특유의 바삭한 소리가 귀를 자극하고, 동시에 코팅된 안쪽 면의 말랑말랑한 촉감을 즐길 수 있다. 왁뿌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설명만으로는 웬지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 것 같은 아이템이지만 요즘에는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 ‘핫’하다. 왁스가 깨지는 소리와 손끝으로 느껴지는 독특한 촉감 덕분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보통 완성품을 구매해서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취향대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번 왁뿌볼 만들기 클래스에는 평소 만들기를 즐겨하며, 왁뿌볼 같은 촉감용 장난감에도 관심 많은 한전기술 인턴 동기 3명이 참여했다.

“저희는 함께 근무한 지 2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부서도 고향도 서로 다르지만 마음이 잘 맞아 이렇게 자주 어울려 다니곤 해요. 오늘도 퇴근하고 다 함께 근처 맛집에 가기로 했어요. 하하.”



언뜻 보기에는 간단한 듯 싶지만 의외로 만드는 과정이 다양했다. 먼저 클레이 반죽에 원하는 색상의 아크릴 물감을 묻힌 후 원 모양으로 빚고, 액체 왁스를 여러 차례 입혀 굳혀야 했다. 화상에 유의하며 왁스 코팅까지 완료한 다음에는 겉면에 슬라임을 바른 후 꾸밀 시간이었다. 인턴들은 다양하게 준비된 비즈와 글리터를 붙이며 저마다 개성을 담은 왁뿌볼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코팅을 해서 장식을 단단히 고정해 마무리했다.

완성한 왁뿌볼은 곧바로 부수기보다 냉장고에서 왁스를 충분히 굳혀야 소리와 촉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인턴들은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었는데 집에 가서 깨뜨릴 생각을 하니 더 설레요”라며 미소 지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만든 왁뿌볼은 손끝의 즐거움은 물론 동기들과의 추억까지 담아낸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E&C**

Mini Interview

동기들과의 첫 출장에 즐거웠던 하루

홍보팀에서 근무하며 전시회, 인쇄소 등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인턴 동기들이 출장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클래스 참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친한 동기들을 초대했습니다. 한전기술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클래스도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상생노무처 오지은 인턴

난이도

1 2 3 4 5

왁뿌볼 부술 생각에 벌써 설레요

왁뿌볼이 유행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만드는 경험까지 해볼 수 있어 특별했습니다. 손재주가 없어서 만드는 건 좀 어려웠지만 얼려서 깨뜨려 볼 생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네요! 인턴 생활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동기들과 잘 지내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인사처 김민석 인턴

난이도

1 2 3 4 5

좋은 동기들과의 만남이 바로 행운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해서 기대하고 왔는데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더욱 즐거웠습니다. 재료만 있다면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타지 출신으로 김천 생활은 처음인데 마음이 잘 맞는 동기들과 만나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동기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싶어요.



인사처 유현영 인턴

난이도

1 2 3 4 5



퀴즈로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청렴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청렴 골든벨



청렴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지만 때로는 어렵게 와닿는 경우도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청렴의 의미를 보다 쉽고 즐겁게 전달하기 위해 김천혁신도시의 타 공공기관과 함께 '합동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청렴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Text 김지연 Photo 조병우



한전기술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합동 행사

지난 6월 17일 한전기술 본사 국제세미나실에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청렴 골든벨'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전기술을 비롯해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3개 기관의 부기관장을 비롯해 임직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 간 교류의 폭을 넓혔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공기관이 가장 갖추어야 할 가치인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합동 청렴 선언으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각 기관의 부기관장과 임직원 대표, 참석자 전원이 청렴 선언을 통해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진행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에서는 팀별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몸풀기로 서로 어깨를 두들기며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K팝 제목 맞추기 등의 재미있는 퀴즈 이벤트도 진행돼 참여자들의 흥미를 높였다. 의견을 나누며 즐거운 이벤트에 몰입하다 보니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참여자들 모두 서로 초면인 상황임에도 부쩍 가까워져 있었다.

자연스럽게 익히고 되새긴 청렴의 가치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된 '청렴 골든벨' 퀴즈였다. 단순히 청렴 관련 규정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와 상식을 접목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아닌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이 아닌 것은?'과 같은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됐고, 참가자들은 번호 입력판을 사용해 정답을 맞췄다. 정답이 공개될 때마다 여기저기서 기쁨과 아쉬움의 탄성이 교차했다.

특히 탈락자가 생기는 서바이벌 방식이 아닌 점수 누적 방식으로 모든 참가자가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 청렴 상식을 배우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여기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포함돼, 청렴이라는 주제를 인권이라는 보다 넓은 가치와 연결 지은 문제 구성도 돋보였다.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개인전 결과, 한전기술 1등은 원전안전기술연구소 임정민 대리가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합동 청렴 골든벨'은 딱딱한 교육에서 벗어나 퀴즈와 소통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이었다. 한전기술은 앞으로도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C**



과학으로 재밌게 풀어 본 한전기술과 미래 에너지

과학 유튜버

‘케도’와 함께한 유튜브 촬영 현장

AI 시대를 맞아 전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과학 유튜버 케도와 함께 카메라 앞에서 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미래 전력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냈다. 토크쇼만큼이나 흥미진진했던 유튜브 촬영 현장을 찾았다.

Text 김지연 Photo 박시홍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케도와 함께한 한전기술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C



Future Energy

재미있고 친근한 과학 토크쇼

AI가 일상이 된 시대. AI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한전기술 사업관리기술실 고은애 대리와 원자력기술처 주민석 주임, 과학 유튜버 케도가 한자리에 모였다. 케도는 구독자 14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진행하며 대중이 과학을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 긴장과 설렘이 오가는 분위기로 수련거렸던 이날 현장에서는 원자력과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과학적인 원리와 직원들의 업무 소개를 바탕으로 풀어냈다. 촬영은 출연진 소개와 함께 시작됐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전문 용어가 등장할 때면 이해하기 쉬운 비유와 사례를 덧붙여 설명했다. 덕분에 촬영장은 흥미로운 과학 토크쇼를 보는 듯한 재미로 채워졌다.

AI 전력 수요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인 AI와 전력 수요였다. 생성형 AI와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AI 서비스 뒤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화제는 원자력발전으로 옮겨갔다.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이 증기를 만들고, 증기가 터빈과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부터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의 외형이 서로 다른 이유 등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흥미롭게 설명했다.

고은애 대리와 주민석 주임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도 소개했다.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 설계는 물론 인허가와 Cost 평가 업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행되는지, 발전소 건설의 시작부터 운영까지 한전기술이 맡고 있는 역할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아울러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BANDI, 신재생에너지 등 한전기술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사업들도 차례로 소개해,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한전기술의 노력을 강조했다. AI 시대의 전력 문제부터 미래 에너지 기술까지, 우리 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친근하게 전달해 '에너지 기술은 곧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카메라 앞에서 전문성을 나눈 한전기술 직원들의 이야기는 유익한 과학 콘텐츠를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한기인들의 진심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E&C



Mini Interview

AI 데이터센터 이야기에서 시작해
원자력발전소가 전기를 만드는 원리,
그리고 그 발전소가 실제로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설계와 검토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파이팅!



오랜 시간을 품고, 새로운 내일로

2026년 상반기 정년퇴임자 인터뷰

인재개발원 정요한 부장

정년퇴임은 오랜 직장생활의 마침표이자 또 다른 시작이다. 묵묵한 책임감으로 자리를 지켜온 인재개발원 정요한 부장이 정년퇴임을 맞아 한전기술에서 보낸 약 35년이라는 시간의 소회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Text 편집실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92년 2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올해 6월 퇴직했으니 34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한전기술에서 보냈네요. 그간 올진 3,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사업행정, 인사팀, 인재개발원에서 직원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인재개발원에서는 16년을 근무했으니 직장생활의 절반을 그곳에서 보낸 셈입니다.

Q 정년퇴임을 맞이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회사의 배려로 퇴직 전 1년간 원격근무라는 완충기간이 있어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나지 않네요. 다만 집이 경기도 용인인데, 회사에서 멀어지니 그간 회로애락을 함께했던 동료들과 만나기가 어려워졌다는 생각에 아쉽고 외롭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회사의 업무 목표나 성과, 마감일로부터 자유로워져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합니다.

Q 근무하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2011년 33기 신입사원을 인솔해 독일로 3박 5일 '신재생에너지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다 교육생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일, 내 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라 버스 기사가 지도를 보면서 속소를 찾아 헤맨 일, 공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와 체증으로 인해 간신히 비행기에 탑승했던 일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솔한 해외연수였는데 리스크에

대처하며 업무를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Q 인재개발원 교육 담당자로서 한전기술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회사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주로 하는 만큼 여러 경영자원 가운데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들이 선배들에게 기술을 잘 전수받고, 사내외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고의 직무전문가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주처와 회사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신뢰받는 직원이 되면 회사 생활이 좀 더 보람될 것입니다.

Q 퇴임 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향후 1년간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복직하는 딸을 위해 아내와 함께 손주 육아를 돕고, 틈틈이 여행도 하고 책도 읽으며 지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에도 참여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Q 그간 함께한 한전기술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위자와 실무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실무자들은 팀장을 직무전문가의 역할보다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로서 리더십을 존중하고, 팀장은 실무자를 직무전문가로 인정하고 경청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C



존경하는 선배님!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한전기술에서 쌓아온
소중한 발걸음처럼 새로운 인생
2막도 선배님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가득 채워가시길 응원합니다!

오케스트라 하모니에서 협업의 답을 찾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디즈니 픽사 OST
오케스트라 콘서트



영화 속 명장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단연 주제곡이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영화 주제곡을
생생하게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감상하고 싶다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만 같다. '가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유체계통설계실
최운재 처장의 오케스트라 콘서트
관람기를 소개한다.

Text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유체계통설계실 최운재 처장



귀로 만나는 영화 속 명장면

사실 나는 음악을 비롯한 예술 분야에 그리 깊은 관심이 없었다. 노래나 그림, 글쓰기에 재능도 없어 그저 남들의 이야기로만 여기며 지나쳐 왔던 것이다. 그런 내게 어느 날, 특별한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문득 '나도 예술을 해볼까?' 하는 호기심에, 가볍게 던져본 '가봤습니다' 신청이 덜컥 당첨되는 행운을 만난 것이다.

이번 체험을 통해 관람한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할리우드 대작 영화와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의 명곡들을 대규모 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라이브 연주로 선사하는 영화음악 콘서트였다. 눈으로 감상하던 영화의 감동을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선율을 통해 청각적으로 극대화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고 할까. 음악보다는 영화 자체를 더 좋아하는 내게는 또 다른 매력적인 무대였다.

<스타워즈>, <원들러 리스트>, <해리 포터> 등 스크린 위 명작들의 주제곡들이 공연장을 가득 채운 1부 공연에서는 악기마다 뿜어내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특히 존 윌리엄스의 대표작인 <원들러 리스트> 주제곡은 바이올린 솔로와 오케스트라의 깊은 선율이 홀로코스트의 비극과 애잔함을 그려내며 묵직한 감동을 선사했다.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영화인지라 그 감동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CONCERT

2부에서는 <라이온킹>, <업>, <인어공주> 등 인기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의 경쾌한 선율이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특히 'Under the Sea'는 다양한 타악기와 관악기의 조화로 바닷속의 신비롭고 경쾌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표현해, 머릿속에 영화의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공연에서 얻은 특별한 깨달음

이날 무대를 빛낸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름 그대로 '축제(Festa)'를 지향하는 단체였다. 엄숙한 클래식 공연장 대신 관객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유쾌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이들은, 정통 필하모닉 구성에 기타와 드럼 등의 대중 악기를 더하고 다양한 효과음을 활용해 영화 속 장면을 연상케 하는 실험적인 연주를 선보이고 있으며, 어려운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음악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대중 악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연주자들은 서로 다른 악보를 보며 각자의 파트를 연주하지만, 그 소리는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다. 음악마다 주인공이 되는 악기도 다르고,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주연과 조연의 역할이 분명했다.

이 모습이 우리 회사와 닮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가 모여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는 융합적인 조직이라면, 우리 회사도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작은 조직들이 모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한다. 각 부서가 만든 결과물을 융합하고, 조율하고, 지원하며 소통하는 과정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각 기술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조직이 협동해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의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될 것이다. 우연히 찾은 연주회가 우리와 나의 조화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 디즈니 픽사 OST 오케스트라 콘서트

HOLLYWOOD BLOCKBUSTER & DISNEY PIXAR MOVIE MUSIC FESTA



© 서울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타워즈>, <인셉션>, <해리 포터>, <캐리비안의 해적>, <토이스토리>, <인어공주>, <알라딘> 등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영화·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은 영화의 명곡들을 만나 볼 수 있어, 오케스트라나 교향곡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즐겁게 감상 가능하다. 성인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경험이 되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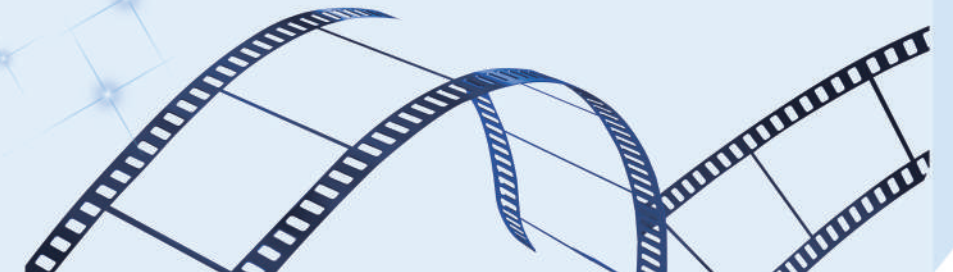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등 오케스트라의 전통 악기뿐만 아니라 전자 악기, 전통 국악기, 특수 타악기 등을 아우르며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된다. 특히 온몸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독특한 지휘 스타일로 화제가 된 백운학 지휘자의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공연의 흥과 몰입감을 더한다.

올해는 서울(2월·6월), 대전(6월)을 거쳐 하반기 성남(10월)과 대전(11월)에서 다시 한번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E&C**

⊕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디즈니 픽사 OST 오케스트라 콘서트



장 소 성남아트센터 | 대전예술의전당
일 시 2026. 10. 24. (성남)
2026. 11. 21. (대전)
입장료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A석 60,000원
관람연령 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010-8675-4559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아봉사’ 입니다

Text 로이스 김 (정김경숙)



로이스 김

前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작가
저서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갑니다> 外

저는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영어교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들어보셨나요? 발칸반도에 위치한 인구 약 60만 명의 작은 산악국가입니다. 서울 송파구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저는 30여 년 동안 글로벌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늘 마음 한편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글코리아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청소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과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서울까지 오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역 학교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본사로 옮긴 뒤에는 지역 시니어센터에서 점심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매일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봉사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중 제가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은 많아야 두 시간, 제 삶의 겨우 1%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인생의 2년 정도는 남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만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평화봉사단에 지원했고, 지금은 몬테네그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곳에 무언가를 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고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류 언어가 아닌 언어를 접하는 기회입니다. 지구에서 60만 명만 쓰는 언어를 배운다는 건 얼핏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같은 노력으로 영어나 중국어를 배웠다면 수억 명과 소통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언어를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딱 60만 명뿐입니다. 제가 이들의 이야기를 다른 언어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시각을 바꾸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몬테네그로어는 세르비아어에 뿌리를 두고 있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편견이 줄어듭니다. 처음 몬테네그로에 와서 놀랐던 건,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시시콜콜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묻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버스 옆자리 할아버지가 대뜸 “결혼했냐?”고 묻고, 주변 사람들도 귀를 쫓긋 세우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던 이 친밀함이, 알고 보니 서로를 향한 관심과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지내는 호스트 가족은 각종 음식이나 밭에서 기른 채소와 과일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요즘,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이들의 가까움이 이제는 오히려 부럽습니다. 셋째는 행복의 근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는 선풍기가 없습니다. 전교생 모두는 오후 1시 전에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으로 달려갑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두세 시간씩 뛰어놀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지만 마음껏 뛰어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이들의 오늘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보다 덜 잘사는 나라,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나라로 ‘자원봉사’를 왔지만, 오히려 제가 얻는 게 훨씬 많은 ‘자아봉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지만, 남을 위한 시간을 한번 내어보시길요. 그 시간은 결국 나 자신을 만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시간 중 몇 퍼센트를 남을 위해 쓰고 있을까요? **ES&C**

Gangneung

여름을 담은 강릉에서

계절을 담은 도시들이 있다. 계절의 절정이 되면 한 번쯤은 찾아야 하는 그런 곳. 덥고 습한 날들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꺼이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는 걸 보면 강릉은 여름을 담은 게 분명하다. 푸른 풍경을 눈에 가득 담고, 시원한 커피 한 모금을 머금고 쉬어 가기 좋은, 여름 맛 강릉으로.

Text 김민영 Photo 정우철

여름이면 누군가의 여행 리스트에는 꼭 오른다는 강릉. 푸른 바다를 품고 있으면서도, 요즘의 감성이 깃든 카페들과 순두부, 막국수, 장칼국수 등 먹거리가 많다. 이렇게 여름 여행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서, 해마다 여름이면 강릉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안목해변, 경포대, 강문해변, 오죽헌, 중앙시장 등 볼거리도 많아서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 여행을 왔든지 간에 안성맞춤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뿐인가. 서울 기준으로 기차를 타거나 자차를 이용해도 2시간 남짓 소요돼서 접근성도 좋다. 그러니 이 여름, 강릉을 찾았다면 취향대로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향해 보자. 어디를 가도 만족도는 평균 이상이 될 테니까.

안목해변에 커피향이 깃들다

여행의 취향이 조금 정적이거나 혹은 쉬어 가는 걸 좋아한다면, 안목해변을 추천한다. 안목해변은 ‘강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만큼 이름값을 하는 여행지니까. 안목해변에서 ‘안’은 마을을, ‘목’은 길목을 뜻하는데, ‘남항진에서 송정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데서 비롯됐다.

작은 마을을 끼고 있던 조용한 해변이 유명해진 건 박이추라는 바리스타가 안목해변에 터를



잡고 커피를 팔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우리나라에 커피 문화의 씨를 뿌린 1세대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가 맛있다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뒤이어 유명 바리스타들이 안목해변으로 와 카페를 오픈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거리가 조성되었다. 이제는 안목해변보다 커피거리로 더 유명한 것도 사실이다.

바다향, 커피향 둘 다 취향이라면

안목해변에 다다르면 ‘바다를 닮은 커피 강릉’이라는 문구가 쓰인 조형물과 ‘안목 카페거리’라고 쓰인 대형 커피잔이 눈에 띈다. 여행객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안목해변의 상징이자 포토존이기도 하다.

안목해변에서는 특별하게 할 게 없다. 푸른 바다를 끼고 길고 넓게 이어진 백사장을 따라 걷고 마음 내키는 자리에 털썩 앉아 바다를 원 없이 바라보면 된다. 나만의 사색의 시간이자, 치유의 시간에 빠지는 동안 눈에 담기는 풍경들. 바닷물로 풍덩 뛰어들며 여름을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림 같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연인들의 모습이 뒤섞이며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왔다 싶다.

이 풍경을 더 오래 담아두고 싶어 카페거리에 있는 통유리창이 돋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같은 장소지만, 카페 안 창을 통해 바라보는 풍경들은 방금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커피를 곁들인 덕분일까. 더 낭만적이고, 길게 다가온다. 평범한 듯하지만, 바다향과 커피향이 뒤섞여 더 진한 매력을 풍기는 이곳, 다음 여름에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다향과 커피향이 뒤섞여
더 진한 매력을 풍기는 이곳, 강릉.





강릉의 역사를 알아보고 싶거든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오죽헌이다.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가 태어난 유서 깊은 집이기 때문. 예로부터 검은 대나무는 까마귀 오(烏) 자와 대나무 죽(竹) 자를 써서 오죽(烏竹)이라고 불렀는데, 집 뒤뜰에 검은 대나무가 자란다는 이유로 '오죽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 주택 건물 중에는 비교적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세계 최초 모자(母子) 화폐 인물 탄생지인 만큼 인근에 강릉화폐전시관도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안목해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카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규모가 크다. 총 4층으로 이뤄져 있는데, 오션뷰가 제대로 보이는 3층과 4층 루프톱이 인기다. 대부분 뷰가 좋은 카페는 커피 맛이 별로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곳은 아니다. 뷰만큼이나 커피 맛도 훌륭하고 곁들일 수 있는 베이커리류도 맛이 좋다. 게다가 음료만큼이나 베이커리 종류도 다양하다. 속초와 서울에도 분점을 낼 만큼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안목해변만의 분위기와 감성은 강릉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여름밤에 떠나는
역사 체험

강릉 국가유산 야행



뜨거운 날씨 탓에 여름은 낮보다 밤이 더 활동하기가 좋다. 더위도 사그라든 데다가 어둠이 내려앉고 건물들이 간직한 불빛이 어둠 속으로 하나둘씩 켜지면,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 더 낭만적이다. 강릉 국가유산야행은 이런 여름과 어울리는 강릉 대표 축제 중 하나다. 문화유산이 밀집된 강릉의 거리를 중심으로 공연, 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밤의 공연 이야기, 밤에 보는 전시, 밤의 문화시장, 밤에 걷는 거리, 밤에 비춰보는 국가유산, 밤의 먹거리, 국가유산에서 하룻밤, 총 8가지 테마로 지루하지 않게 국가유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해마다 진행되는 스탬프 투어도 빼놓지 말아야 할 축제 즐길 거리! 올여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2026 강릉 국가유산 야행

강릉대도호부관아, 서부시장, 명주동 일원

2026. 08. 14.~16.

033-640-5373(강릉시청 문화유산과)

※ 매년 8월 중순 3일간 개최

어려운 작문·독서도

AI와 함께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 어딘가 부족해 보이거나, 책을 다 읽었는데도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다. AI를 활용하면 초고를 매끄럽게 다듬어 주거나 맞춤 책을 추천해 주는 등 더 깊고 풍요로운 글쓰기와 읽기가 가능하다.

Text 편집실

글쓰기가 어렵다면

글을 쓸 때 처음부터 AI에게 전부 맡기기 보다는 다소 서툴더라도 직접 초고를 완성한 뒤 AI에게 퇴고를 요청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AI는 틀린 맞춤법이나 어색한 문장을 다듬어 주고, 같은 의미를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이메일, 보고서, 자기소개서, 감사 인사처럼 정중한 문체가 필요한 글에서 유용하다.

AI는 객관적이라 사용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AI가 수정해 주는 결과물을 확인하고 다시 요청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글쓰기 실력도 함께 늘어난다.

이런 앱 활용하면 좋아요

클로드
긴 글의 흐름을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탁월하다. 글 전체의 구성이나 문단 연결을 점검받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다.

뤼튼
글쓰기와 문장 다듬기에 강해 독후감 작성이나 책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문, 서평을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책을 더 재미있게

읽고 싶다면

독서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거나 등장인물이 헷갈릴 때 AI에게 질문하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준다. 어려운 경제, 역사, 철학책도 중학생 수준으로 풀어서 설명하거나 핵심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독서 입문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문학적 표현의 의미, 인물의 심리 상태, 작가가 전하려고 한 메시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면 새로운 해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AI가 알려주는 정보는 참고 정도로 받아들이고, 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직접 읽으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책을 읽고 느낀 의견을 먼저 제시하면서 AI에게 질문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책을 읽기 전이나 읽기 시작할 때 줄거리를 먼저 알고 싶은 경우가 있다. 이때 줄거리 요약을 요청하면서, “스포일러 없이”라고 요청하면 결말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주요 인물,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주요 반전이 뭐야?”라고 질문하면 책의 핵심 요소 파악도 가능하다.

이런 앱 활용하면 좋아요

챗GPT
줄거리 요약과 등장인물 정리, 어려운 문장 해석을 잘한다.

퍼플렉시티
책과 관련된 저자 정보, 시대적 배경, 참고 자료를 함께 찾아볼 때 유용하다.

다음 책이

고민된다면

AI는 단순히 베스트셀러를 추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재미있게 읽은 책이나 관심 있는 주제를 알려주면 비슷한 분위기의 책을 추천하고 난이도, 장르를 고려해 독서 목록을 만들어 준다.

이때 자신의 정보를 자세히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나이대, 독서 취향, 선호하는 장르, 현재 마음 상태 등을 알려주면 AI가 그에 맞는 책을 찾아줄 것이다. 또, 단순히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 대신 자신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설명하고 비슷한 책을 알려달라고 하면 더 정확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책 두 권을 비교하도록 물어볼 수도 있다. 리뷰 사이트의 평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책의 문체, 주제의 깊이 등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좋다.

이런 앱 활용하면 좋아요

밀리의 서재
전자책 플랫폼으로, 책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거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추천하는 ‘AI 독파밍’ 기능이 있다.

월라
오디오북 서비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음성을 낭독한다. 출퇴근이나 운동 중에도 부담 없이 독서할 수 있다.

※ AI가 만든 글이라도 최종 검토와 활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표절이나 사실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AI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수정·보완해 완성하자.

WRITING



버리는 것도 센스 있게

슬기로운 분리배출

분리배출은 환경보호를 위한 가장 쉬운 실천이지만, 막상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헷갈리곤 한다. 매일 버리는 쓰레기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다.

Text 편집실

1

음식을 쓰레기? 일반쓰레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지 못하면 일반쓰레기다.

음식을 쓰레기



사과·귤 껍질



수박 껍질
(잘게 자른 경우)



딸기·토마토 꼭지



밥



빵



채소류



생선살

일반쓰레기



동물·생선 뼈



조개껍데기



핵과류
(매실, 자두) 씨



채소류
뿌리·껍질



티백



한약·차류
찌꺼기



달걀껍데기

Tip!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바나나 꼭지는 일반쓰레기다. 김치는 양념을 물에 행궈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한다.

2

플라스틱은 깨끗하게 비우기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비우고 행궈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



라벨 제거 후
압착해서
버리기



배달용기
안 음식물
제거하기



컵라면 용기는
이물질 세척 후
배출하기



치약 튜브,
과자 봉지 등
복합재질은
일반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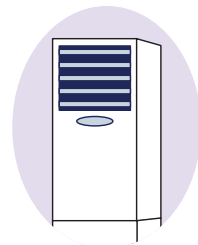
Tip!

라벨이 없거나 쉽게 벗겨지는 무라벨 플라스틱을 선택하면 분리배출도 훨씬 편리하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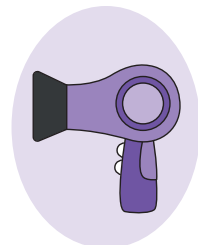
폐전자제품은 무상 수거 서비스 이용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 등은 지자체의 절차에 따라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번호(또는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대형폐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www.15990903.or.kr / ☎1599-0903)를 이용해 배출한다. 재사용 가능한 전기전자 제품은 지역 재활용센터에 판매하거나, 신규 구입시 대리점에 역회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형폐가전

컴퓨터, 고데기,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다리미 등 소형가전제품은 주민센터 수거함에 직접 배출하는 등 지자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5개 이상 배출할 경우는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분리배출 방법, 항목이 헷갈릴 때는 모바일 앱 ‘내손안의 분리배출’이나 누리집 ‘분리의 정석(www.분리배출.kr)’에 항목 또는 거주하는 지역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알맞은 분리배출이 환경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며, 물건을 버리는 순간까지 조금 더 신중하게 실천해 보자.

도각도각
말랑말랑

다시 장난감에 빠진 어른들

가방에는 키캡 키링을 달고, 책상 위에는 말랑이를 올려둔다. 어린이의 전유물 같은 장난감들이 성인의 새로운 취향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한때 썰렁했던 문구·완구거리에도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Text 편집실

TOY STORE

키캡의 딸각 소리나 말랑이의
쫘득한 촉감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위안을 선사한다.

물건으로 누를 때마다 경쾌한 도각도각 소리가 난다. 말랑이는 폼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손으로 꺾 누르면 찌그러졌다가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와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한다. 왁ப்ப볼은 슬라임 결면을 왁스로 코팅한 것으로, 손으로 깨뜨릴 때 나는 소리와 감각이 쾌감을 준다. 셋 다 다른 감각을 자극하지만, 손끝으로 뭔가를 누르고 만지는 동안 머릿속이 잠시 비워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왜 다 큰 어른들이 이런 것에 빠졌을까? 현대인의 일상 대부분은 디지털 기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루 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정보를 얻고 업무를 처리한다. 눈과 머리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정작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손끝으로 느껴지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에서 안정감을 찾으며 기분을 환기하는 것이다.

나를 표현하는 작은 위안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다이어리를 스티커로 채우는 ‘다꾸’를 넘어 가방에 인형과 키링을 잔뜩 매다는 ‘백꾸’, 볼펜이나 거울을 액세서리, 인형 등으로 장식하는 ‘볼꾸’, ‘거꾸’ 등 자기 취향대로 물건을 꾸미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키캡은 여기에 더없이 좋은 재료다. 색깔과 모양을 마음대로 골라 조합하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다. 완성품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고르고 조립하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고 그 결과물을 SNS에 공유한다. 단순히 장난감을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사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트렌드와도 궤를 같이한다.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부담 없이 즐기 쉽고, 짧은 순간에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키캡의 딸각 소리나 말랑이의 쫘득한 촉감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위안을 선사한다. 비싸고 화려한 취미를 가질 시간도, 여유도 없는 이들에게 3천 원짜리 말랑이는 꽤 가성비 좋은 거래처럼 느껴진다. 다시 창신동과 천호동 완구거리로 돌아가 본다. 한때 어린이 손님만 기다리던 이 거리는 이제 키덜트(어린이 같은 취미를 가진 어른)의 성지가 됐다. 도매점이 소매까지 겸하게 됐고, 지방에서 연차를 내고 찾아오는 손님까지 생겼다는 후문이다. 어릴 적 문방구 앞을 서성일 때의 그 설레던 마음을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마음속 어딘가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장난감들이 증명한 셈이다. E&C

누르고 만지고 부수는 장난감

한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던 서울 창신동, 천호동의 문구·완구거리가 최근 다시 북적이고 있다. 학용품 쇼팽마저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추세에, 임대료 상승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하나둘 문을 닫는 상점이 많아지던 거리였는데 이제는 평일 낮에도 매대 앞에 줄을 서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다름 아닌 키캡, 말랑이(스퀴시), 왁ப்ப볼이다. 이름만 들으면 어린이의 필통에 들어있을 것 같은 이 장난감들이 지금은 성인들이 흔쾌히 지갑을 여는 아이템이 됐다.

이 세 가지는 생긴 것도, 노는 방식도 다르다. 키캡은 기계식 키보드의 자판 덮개를 떼어내 키링이나 클리커로 만든

상큼 담백한 여름 맛의 조화

토마토 가지 파스타

토마토와 가지는
여름철 대표 식재료로 꼽힌다.
상큼한 토마토와 담백한
가지를 활용한 파스타는
무더위에 지친 몸과 입맛에
활력을 주고, 여름 식탁에
싱그러움을 더하는 메뉴다.

Text 편집실

토마토와 가지가 맛있는 계절

여름 햇살을 가장 많이 머금은 식재료를 꼽는다면 단연 토마토와 가지다. 제철을 맞은 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익혀 먹으면 풍미가 더욱 깊어진다. 토마토의 붉은 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손상 감소에 도움을 주며, 열을 가해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타민 C와 칼륨도 풍부해 무더운 날씨에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가지는 여름철 대표 채소답게 수분 함량이 높아 더위로 지친 몸에 부담 없이 즐기기가 좋다. 보랏빛 껍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과 혈관, 콜레스테롤 관리, 눈 피로 감소에 효과가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도 좋다. 가지는 식물성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불포화 지방과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할 수 있다. 토마토의 상큼한 산미와 가지의 담백한 맛은 서로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여름 제철 식재료인 두 가지를 활용한 메뉴로 무더운 계절 가볍고 건강한 한 끼를 즐겨 보자. **E&C**

토마토 가지 파스타 만들기

재료 (2인분 기준)

스파게티면 또는 펜네 (200g)

OR
가자

토마토 2개

가지 1개

양파 1/2개

마늘 4쪽

올리브오일 3큰술

소금, 후추 약간

바질 (생바질 또는 바질가루)

파르메산 치즈 (선택)

레시피

1. 스파게티면은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포장지 표기 시간대로 삶는다.
2. 토마토는 한입 크기로, 가지는 반달 모양으로, 양파는 채 썬다. 마늘은 편으로 썬다.
3.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낸 뒤, 양파와 가지를 넣어 노릇하게 익힌다.
4. 토마토를 넣고 약불에서 볶아 자연스럽게 소스가 되도록 끓인다. 이때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5. 삶은 면을 넣고 잘 버무린 뒤 바질을 더해 마무리한다. 기호에 따라 파르메산 치즈를 뿌리면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Tip

- ☑ 토마토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아야 상큼한 맛을 살릴 수 있다.
- ☑ 가지는 센 불에서 먼저 볶으면 식감이 무르지 않는다.
- ☑ 닭가슴살 또는 새우를 추가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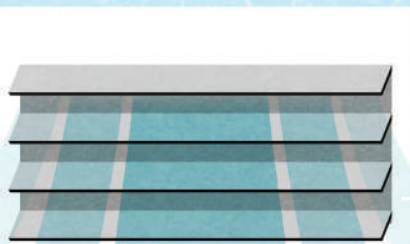


여름철 불청객

에어컨이 만든 계절병,
냉방병 주의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사무실 곳곳에서 몸이 으슬으슬하다,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말이 들리곤 한다. 밖은 찜통더위인데 이상하게 몸 상태는 겨울 감기 같은 이런 증상이 바로 냉방병이다.

Text 편집부



COLD

냉방병의 원인과 예방

비갈 기온은 30도를 넘는데 사무실은 그보다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온도 차가 5~8도 이상 벌어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온도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다.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두통, 피로감, 근육통이 나타나는 것이다.

에어컨은 공기 중 수분을 제거하며 작동하는데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이는 목감기나 비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을 오래 가동하면 공기가 정체되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집중력 저하와 만성 피로가 찾아온다. 이렇게 하루 종일 냉방된 실내와 무더운 실외를 오가다 보면 체온 조절 시스템에 부담이 생기게 되고, 감기와 유사하게 기침,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과 복통,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난다. 냉방병은 특별한 치료제 대신 냉방기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환기를 잘하면 대부분 호전되나, 에어컨 내부나 냉각수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오한과 고열을 동반하는 레지오넬라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 에어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를 자주 청소하는 것이 좋다. **E&C**

냉방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실내외 온도 차
5도 이내로 유지



2~4시간마다
5분 이상 실내 환기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기



습도 40~60%
유지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나도 냉방병일까? 체크리스트

- 1 오전보다 오후에 유독 몸이 무겁고 피로하다.
- 2 여름인데도 손발이 차갑고 으슬으슬하다.
- 3 이유 없이 두통이 반복된다.
- 4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 5 근육통이나 관절 뻣근함이 있다.
- 6 콧물, 재채기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
- 7 에어컨을 끄거나 실외로 나가면 증상이 완화된다.
- 8 집중력이 떨어지고 유난히 졸리다.
- 9 입맛이 없고 무기력하다.
- 10 입병, 구내염 등이 자주 생긴다.

0~3개

가벼운 냉방병 초기 단계. 실내 온도와 환기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4~6개

냉방병 중간 단계. 에어컨 온도를 높이고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7개 이상

냉방병 증상이 누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내 환경 개선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래도 회복이 더딘 경우 진료를 권합니다.

E&C NEWS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협력 기반 강화



김태균 사장과 박기조 원자력사업본부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17일과 18일 프라하에서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초기 핵심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주 및 현지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발주처 EDUII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김태균 사장은 '두코바니 프로젝트 이행점검 협의체'에 참석해 사업 이행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적기 사업 수행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체 원전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회사와 체코 엔지니어링 기업(ENERGOPROJEKT PRAHA) 간 설계 기술지원 용역 계약 서명식을 개최, 두코바니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설계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회사 참여 컨소시엄, 전북 서남권 800MW 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1(부안800MW) 공공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전북해상풍력 컨소시엄(사업 참여기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군 인근 해역에 총 8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북도가 추진 중인 2.4GW 규모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다. 회사는 이번 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투자와 함께 설계·조달·시공(EPC)에 참여한다. 발전플랜트와 해상풍력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사업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이끌 계획이다.

LS전선과 부유식 해상풍력 '동맹' 구축



지난 5월 11일, LS전선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패키지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급증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 시스템 설계 최적화 및 안전성 검토 등 초기 엔지니어링 ▲전력 계통 최적화, 통합 EPC 일괄 수행(Turn-key) ▲스마트 운영·유지보수(Smart O&M)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JULY+AUGUST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계 환경의 날' 맞이 친환경·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



지난 6월 1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본사 사옥 및 김천구미역에서 사내 임직원과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경영진이 직접 참여해 친환경·에너지 절약 홍보 구호를 전파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홍보 기념품을 전달하며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천구미역에서는 지역 시민과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실천 방안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2년 연속 그랑프리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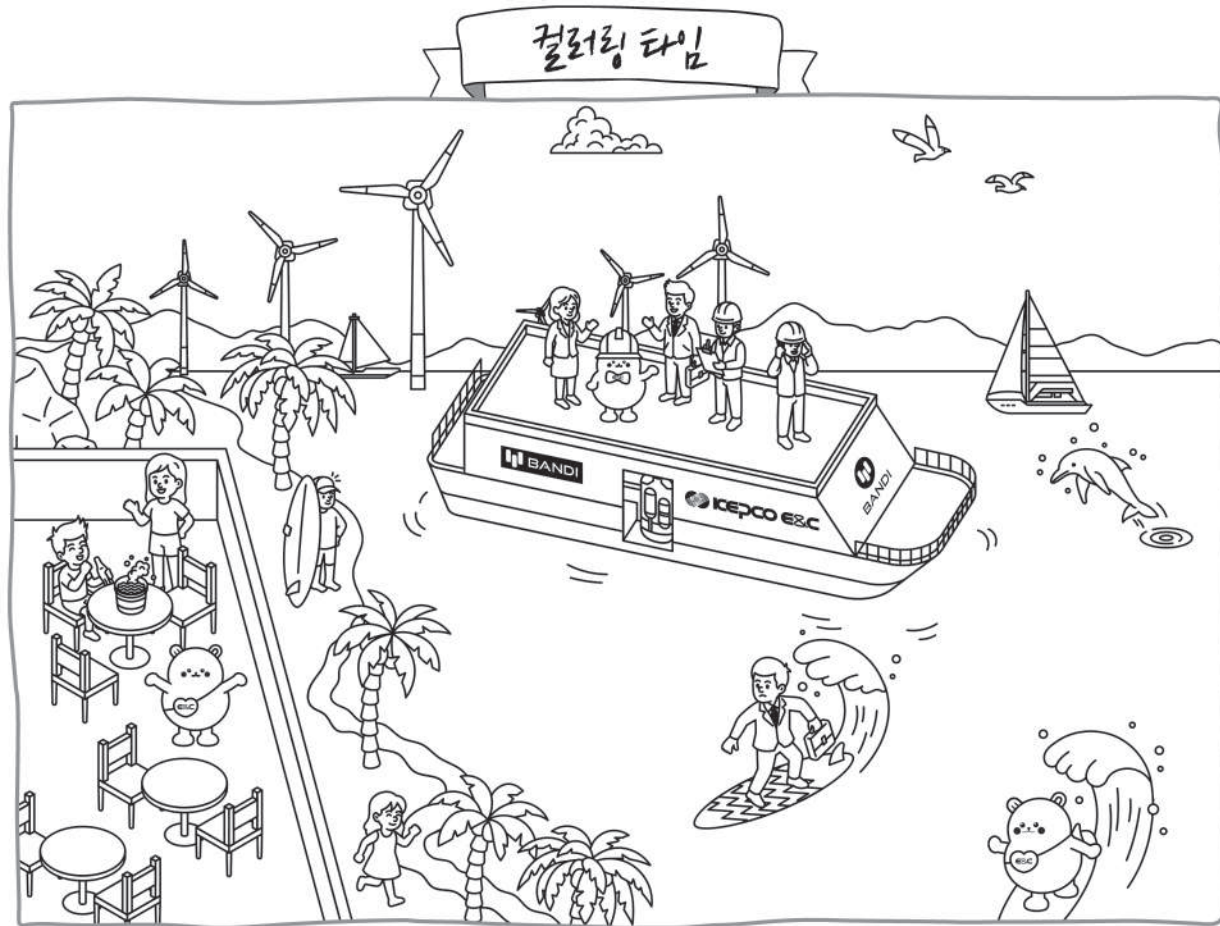


지난 5월 1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AI혁신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AI혁신 사례를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년 연속 그랑프리 대상을 석권해 원자력 분야 AI 기술의 독보적인 위상을 공고히 했다. 회사는 [한정기술 AI의 설계 패러다임 혁신: NEXA 2.5와 SMR AI 플랫폼으로 여는 차세대 엔지니어링]을 주제로 응모해, AI 기술로 설계 엔지니어링의 본질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2년 연속 S등급 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2년 연속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적·무 준수와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했으며, 그 결과 54개 기관에게만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회사는 2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해 지속가능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입증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및 이행·개선 노력 부문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고 그 밖의 모든 지표에서도 '우수' 이상을 기록해 안정성과 선제적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태균 사장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안 체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기술 마스코트 '테크니'가 있는 풍경을 예쁘게 색칠한 뒤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완성한 컬러링 도안을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신 분들 중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선정작은 9+10월호에 공개됩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 표지에 숨어 있는 테크니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테크니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컬러링 도안도 완성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세요.

• 보내실 곳 : kepcoencsabo@gmail.com ※ 성함,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기한 : 2026년 9월 14일까지

5+6월호 당첨작을 소개합니다



고O미(8084)



안O현(4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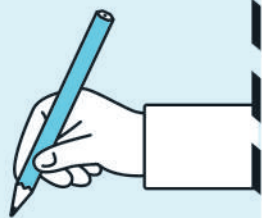
이O석(1739)



정O훈(3719)



정O현(6927)



한국전력기술 SNS에서 다양한 소식을 만나 보세요!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한국전력기술 SNS에 초대합니다~

Instagram



APR1400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1,400MW급 대용량 원전 모델 APR1400은 UAE 바라카 원전 1~4호기에 적용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한전기술이 세계에 참여한 대한민국 대표 원전 기술, APR1400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APR1400 #원전 기술

YouTube



“잠은 언제 자나?” 미국 엔지니어도 경악한 한국인들의 광기

자원·기술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뤄내고, 원전 기술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한전기술 1세대 엔지니어들의 피땀 눈물로 이뤄낸 에너지 기적의 역사를 만나 봅니다.

#원자력 기술 자립 #원전 기술 수출

HELLO
한국전력기술 SNS



사보 구독 신청

홍보팀 이메일 sky03tree@kepc0-enc.com